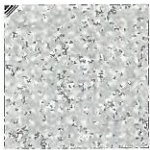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16호
2022년 10월 9일(다해)

연중 제28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을 바코드로



입당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 2열왕 5,14-17

화답송 | 시편 98(97),1,2-3 가. 3. 드. 4(◎ 2 참조)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 2티모 2,8-13

복음환호송 | 1테살 5,18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음 | 루카 17,11-19

영성체송 |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라진 후에 알게 되는 것들

외국에서 활동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들어오시면 인사동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인사동을 다녀오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예가가 직접 쓴 두루마리 하나를 사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사 왔냐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썸이 밝으신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작품이 쓸모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서는 다시 외국으로 나가셨고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벽에 걸려있는 두루마리 글귀 아래에서 슬피 우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하신 두루마리에는, “부르면 언제나 가슴 뛰는 당신”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곁에 있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곤 하지요. 우리는 그제야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냈음에 후회하며 지난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환자 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의 나병은 온갖 종류의 피부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은 하느님께 받는 벌이라 여겨졌으므로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제들을 찾아가 병의 완치 여부를 검사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순간 나병환자들은 더없이 기뻐했지요. 서로 부둥켜안으며 그 동안의 설움을 털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것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뿐이네요.

저는 다른 이들 역시 예수님께 마음으로는 감사를 드렸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먼저 보이고 싶었을 것이고 잔치라도 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잊혀 갑니다. 행복한 상황에 취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원은 감사 기도를 통해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인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랑이란 어디서나 존재하며 우리의 곁에 보란 듯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그 사랑을 받았던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후회하지요. 그러니 새로운 한 주, 우리 곁에 있는 주님의 소중한 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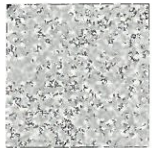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루카 17, 17)

치유된 열 사람 중 감사를 드리러 온 유일한 한 사람. 베품에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육신의 치유는 물론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은총을 불러들인 결과입니다. 부끄럽지만 어리석은 아홉 사람 중 하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늦었지만, 제게 주신 수없이 많은 은총에 겸손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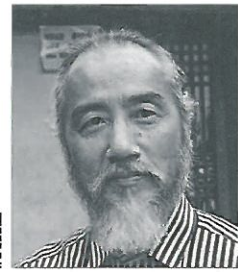
신앙 선조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오래된 성당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지에 세워진 옛 성당은 뽕죽 종탑이 수직으로 우뚝 선 서양식 성당들이었습니다. 그 이국적인 이미지에 매료되어 사진을 찍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100년이라는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진 작업으로 성지 외에도 현존하는 다수의 옛 성당을 찾아 전 교구를 누비게 되었으며, 사시사철 변화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 서양식 성당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오랜 박해 끝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19세기 말입니다. 밀려오는 서구 열강의 힘에 못 이겨 종교의 문도 열리게 되면서 말이지요. 100여 년을 꼭꼭 숨어 기도하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고, 신자 수의 증가는 급기야 성당 신축으로 이어져 1892년에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 약현고개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양식 성당 건축은 당시 조선 교구를 담당했던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님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딕 양식의 서양식 성당들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신축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하물며 100여 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의 성전 신축은 그야말로 온전히 신앙 선조들의 신심 어린 기도와 발품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 두 끼로 연명하면서도 웅기를 굶고 솥을 구워 한 푼 두 푼 엽전을 모았고, 벽돌을 굶고 나르고, 돌을 지고, 목재를 켜고... 이렇게 피와 땀으로 지어진 성전이라 그런지 옛 성당에 들어서면 숙연함을 느끼기에 앞서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원 안셀모 | 울산대 미술학부 교수

그런지 저는 옛 성당에 들어서면 왠지 하느님께서도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만 같습니다. 신앙 선조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기도로 이루어진 성전이니 아무래도 성령이 더 충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톨릭이야 세계 어느 성전을 가더라도 똑같은 전례를 따르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르지 않으니, 무지하고 생뚱맞은 신자인 저의 편견일 겁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안 성전 문을 걸어 잠갔고, 본당 신자 외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사진 한 장을 위해 먼 길을 달려갔지만 아쉽게도 문밖에서 되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통은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요한 16,23)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백신이요 치료 약입니다.

“피투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피와 땀으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신앙 선조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한컷 묵상

이웃
사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리라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3

교회의 어머니, 시온의 딸 2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시온 혹은 시온의 딸이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구약의 하느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시온의 딸'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탄생을 암시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배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과 같은 선택받은 의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들'은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온의 딸'은 하느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이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며, 하느님의 공동 협력자를 지칭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마리아를 '시온의 딸'로 이해하고 연관시켰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마리아를 '참된 이스라엘', '시온의 딸'로 부르게 되었고, 이 내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적용되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느님 백성'입니다. 이 교회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보여주신 신앙적 순종의 "예!"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느님께 맡겨진 것이지만,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 "예!"(Fiat)가 요구됩니다. 마리아의 신앙과 순종이 구세주의 강생을 가능하게 했기에, 마리아의 신앙적 순종은 교회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성경에서 구원론적 의미를 지닌 표현인 동정녀, 어머니, 시온의 딸 등의 호칭

을 마리아에게 수여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깊은 신비 역시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본질),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사명)에 대한 대답을 초기 그리스도교는 마리아의 동정성과 모성에서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를 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낳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른 것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기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낳고 기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종하는 동정녀이자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몸에 품고, 함께하고, 따르는 마리아의 모습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범이고 원형이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성모님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고,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리아의 삶이 "탁월하고도 독특하게"("교회헌장" 63항) 교회보다 앞서서 존재했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지녀야 하는 어머니로서 또는 동정녀로서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지금 그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며, 마리아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반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사무엘 예언자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를 대상으로 한 제비뽑기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뽑혔고, 백성들은 사울을 하느님이 보내주신 임금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지 2년이 지나 필리스티아인들의 침략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그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며, 대사제만 봉헌할 수 있는 제사를 자의적으로 진행해 대사제의 권위를 침범했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과 사무엘에게 미루기까지 합니다. (1사무 13장)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많은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버림을 받고 더욱더 궁지로 몰립니다.

사울은 강박증에 시달리며 지도자에게 걸맞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에 집착하여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세부적인 규정에 집착하며,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날 이스라엘군이 곤경에 처했을 때, 사울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다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군사들은 모두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였다.” (1사무 14, 24) 이런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은 그의 전반적인 삶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편집성 성격장애도 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다윗을 공신으로 대우하는 대신 라이벌로 여깁니다. 다윗이 그의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그를 정적으로 간주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울의 편집적인 의심은 자신의 편인 베냐민 지파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 분노, 증오,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은 가차 없이 죽이는데 점점 더 집착합니다.

사울은 민심을 잃고 가장으로서도 가족들의 냉대를 받게 됩니다. 스승 사무엘에게도 버림을 받아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큰 승리를 얻은 용사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게다가 신앙의 관점에서도 실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필리스티아군과 전쟁 중에 길보아 산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자결하면서 비참하게 삶을 끝냅니다. 능력도 많고 용맹했지만, 초심을 잃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마음을 잃고 하느님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정상에서 바닥까지 끝없이 추락하는 데는 그의 반사회적인 성격이 작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많은 백성도 고통 속에 밀어 넣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무엘기 상권 1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세요.)



하인리히 비버(1644-1704)

바이올린으로 바치는 묵주기도 비버 '묵주 소나타 Rosary sonatas'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1905년 출판될 때까지 약 230년 동안 독일 뮌헨의 한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던 악보가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이 필사본의 표지는 이미 소실되어 제목을 알 수 없었으나, 열다섯 곡의 시작마다 곡 내용을 암시하는 동판화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 판화는 예수님의 잉태부터 성모승천까지 이어지는 묵주기도의 신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곡은 '묵주 소나타(Rosary sonatas)', '신비 소나타(Mystery sonatas)' 또는 '동판화 소나타(Copper-Engraving sonatas)'라는 제목으로 불렸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하인리히 비버(Heinrich Ignaz Franz von Biber, 1644-1704, 오스트리아)의 작품입니다. 바흐보다 40년 정도 앞서 보헤미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비버는 20대 중반 이후, 잘츠부르크에 정착해서 궁정, 교회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작곡가로서 수많은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에서 새로운 음색을 찾아내고 음악적 효과를 높이려는 실험적 시도를 한 개혁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기존 조율 방식이 아닌, 현을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하여 특이한 음색,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율 방식을 사용했는데, 스코르다투라(scordatura)라는 조율 방식입니다. 비버는 이 스코르다투라를 <묵주 소나타>에 다양하게 적용해서 이 곡을 드라마틱한 동시에 신비로우면서 매력적인 음악으로 만들었죠. 곡마다 다른 조율로 묵주기도 내용에 부합하는 음악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는데, 특히 11번 '부활'에서는 바이올린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서로 교차되게 줄감개에 걸어서 악기에 십자 형태가 만들어지게 조율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 연주자

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르다투라 조율 자체가 표준적인 조율 방식이 아니다 보니 평소와 다른 음이 나와 연주자가 혼란스럽기 쉽고, 화음을 내기 위한 주법, 확장된 음역에서 빠른 연결 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전에 없던 새로운 연주법이었기에 더욱 어려웠다고 하죠. 이는 이 곡이 1676년경에 작곡됐지만 오랜 동안 잊혀왔던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에 지금은 '빛의 신비'가 추가되었지만 비버가 작곡할 당시에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5단씩 총 15단만으로 구성된 형태였기에 비버는 열다섯 곡의 짧은 소나타(여기서 '소나타'는 소나타 양식의 곡이 아니라 단지 기악곡을 의미)를 쓰고, 마지막에 '파사칼리아(passacaglia: 원래 17세기 초엽 스페인의 춤곡이었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변주곡 형식의 느린 3박자의 독립 기악곡이 됨)'로 마무리했습니다. 열다섯 곡의 소나타는 1번 '주님 탄생 예고(The Annunciation)'로 시작해서 15번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The Beatification (or Coronation) of the Virgin)'까지, 각 곡마다 15단 묵주기도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에 그 옛날 신심 깊은 비버가 작곡한 바이올린 연주로 바치는 묵주기도는 우리의 묵상을 더 깊이 있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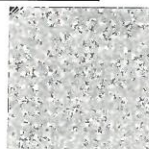


묵주 소나타 1번 '주님 탄생 예고' (바이올린:
리나 투르 보네트, 통주저음: 무지가 알케미카)

묵주 소나타 13번 '오순절(성령 강림)' (바이올린:
리나 투르 보네트, 통주저음: 무지가 알케미카)



묵주 소나타 16번 '파사칼리아'
(바이올린: 앤드류 맨츠)



고딕 대성당의 스스로 빛나는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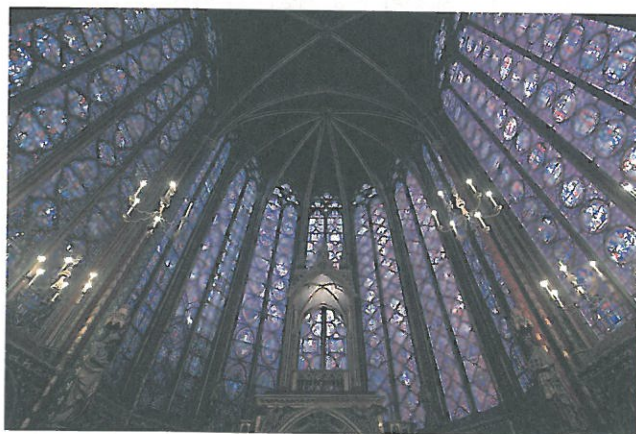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는 신전과 그것을 둘러싼 일정한 땅을 모두 거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에서는 성당이 놓인 땅 전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은 성당의 벽 안쪽뿐입니다. 고딕 대성당 안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약간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밝게 보이기 시작하며 내가 신비한 빛으로 감싸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딕 대성당에서는 벽을 뚫어 넓게 만든 개구부를 스테인드글라스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최고의 초월적인 내부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고딕 대성당은 될 수 있으면 벽을 많이 뚫고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고딕 대성당의 엄청난 구조는 모두 내부의 신비로운 빛을 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스테인드글라스를 여닫거나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고딕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자체가 빛이 삼투해 들어오는 ‘빛나는 벽’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대성당이 투명하고 얇은 막을 벽으로 삼아 에워싸여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두고 미술사가 한스 제들마이어(Hans Sedlmayr)는 “스스로 빛나는 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당 안의 거룩한 장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빛으로 ‘빛나는 벽’, 발광체처럼 ‘스스로 빛나는 벽’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묵시 21, 18-21) 요한묵시록의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하느님의



생트샤펠, 프랑스 파리

집을 하늘에 매달려 있는 천상의 도시로, 벽을 금이나 보석이라는 빛나는 물질로 지은 천상의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부들은 보석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투과하여 물질에 감추어져 있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보석을 닮았다고 보았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이라고 고백하지요?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이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꼭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고딕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신학적 의미입니다.

고딕의 ‘빛나는 벽’. 그 정점은 생트샤펠이라는 경당(1248년)일 것입니다. 이 경당은 루이 9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그리스도의 가시관과 그분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을 받고, 이것들을 모시기 위해 왕궁에 세웠는데, 벽면 전체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천장까지 연속하는 스테인드글라스로 빛나고 있습니다. 무수한 입자로 분해된 빛의 벽, 가볍게 스스로 빛나는 막으로 에워싸인 하느님의 집이 하느님을 조용히 찬미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서경룡 신부	압구정동 본당 주임	휴양
이태석 신부	노인요양병원 사목 준비	압구정동 본당 주임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목주기도성월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8년 10월 12일 최상준 시몬 신부(33세)
- 2001년 10월 14일 박성춘 레오 신부(86세)
- 2009년 10월 11일 최광연 모세 신부(73세)
- 2017년 10월 11일 박순재 라파엘 몬시뇰(80세)
- 2020년 10월 14일 임태경 루카 신부(85세)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수업'

주제: 내가 모르는 나를 만나다
때: 10월14일~2023년 1월13일 매주(금)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제9회 그라운드 심포지엄

주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톨릭 교육의 방향
때, 곳: 10월15일(토) 14시~17시, 서울성모병원 성의
회관 708호 / 문의: 010-3169-9979(canet@catholic.or.kr)

돌봄 노동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활동지원사) 마음 돌봄 피정

때, 곳: 10월29일(토) 10시30분~30일(일) 13시30
분, 우이동 명상의 집 / 회비: 피정 3만원
인원: 20명 / 10월14일(금)까지 접수
문의(접수): 02)924-2721, 2 노동사목위원회

향심기도 5박6일 집중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30만원
지도: 이승구 신부 / 문의(접수): 010-4565-8898
때: 11월14일(월) 17시~19일(토) 16시
곳: 고난회 명상의집(우이동)

유튜브를 활용한 힐링아트프로그램(서울시 후원)

대상: 재미있는 삶에 관심있는 은퇴소방관 및 60
대 이상의 교육 / 참가조건: 젊게 살고 싶은 마음
문의: 02)727-2078, 0507-1352-4065(개인이나 팀
으로 신청가능 / 선착순 10팀) 사목국 직장사목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36차 미사 10월1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서포 본당, 마산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된본당을 위한 목
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10월15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10월11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
째(화),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10월 유가족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0월15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경당
(구 계성여고) / 집전: 이창영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22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
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
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
모 혹은 예비 조부모, 50명(선착순 마감)
교육내용: 변화된 아동 발달, 양육 태도와 그에
맞는 훈육·칭찬 방법, 말씀과 함께하는 구체
적인 신앙 전수법 등
때, 곳: 10월17일~11월28일 매주(월) 오전 10시30
분~12시30분(총 7회), 서울대교구 교구청 501호
회비: 8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
140646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신청기간: 10월11일(화)까지(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
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https://senior.catholic.or.kr>)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문의: 02)727-2385, 2386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박보규 수사 개인전: 1전시실
라병숙 목주전 '기도의 향기': 2전시실
경기55회 사진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12일(수)~17일(월)

대림·성탄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움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본당, 청년, 장년 등)
때: 주중 10월24일(월), 10월31일(월) 3시간~2회 ·
주말 10월29일(토) 6시간~1회(주중, 주말 중 택1)
접수 및 등록: 10월4일(화)~17일(월)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 / 문의: 02)393-
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성음악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
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만 65세 이하) / 회비: 10만원
때: 10월26일~2023년 3월22일 매주(수) / 20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신청기한: 10월14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서울대교구 가톨릭 초등학교교육자의 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꿈꾸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 목적: 교육자의 영적
소명 & 신앙인 교육자의 연대와 일치
내용: 특강·나눔·축복미사 / 회비: 2만원
대상: 가톨릭 신자인 서울 초등학교 교직원이면 누구나
때, 곳: 10월29일(토) 10시~16시, 서울성심여자
고등학교(용산) / 행사 뿐 아니라 '가톨릭 초등
교육자회'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신청): 02)553-7322 서울대교구 학교사목부
마감: 10월14일(금)까지 선착순 50명

인준단체 알림

모임

돌아보며 깨닫기

혼인 성소 찾기 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유튜브: 돌깨TV
영성 심리상담 / 문의(예약): 010-3173-2665

이탈리아 순례(2023년)

때: 64차 3월17일~29일 / 회비: 495만원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주최: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대표부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

집전: 염수정 추기경 / 준비물: 묵주, 미사 준비
때, 곳: 10월13일(목) 14시~16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21일~24일·11월4일~7일·11월18일
~21·12월2일~5일·12월16일~19일·2023년 1월6일~9
일·1월27일~30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새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새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분장
때: 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11월1일~3일
·11월15일~17일·11월21일~23일·12월31일~2023년
1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피정

곳: 명상의 집(우이동) / 문의: 02)990-1004

대침목 피정	10월21일~23일, 11월25일~27일(2박3일)
집단 심리상담 피정	1차 10월17일, 2차 10월24일
개인 피정·위탁 피정	별도 문의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10월18일~20일, 10월24일~26일, 11월18일~20일,
순례	12월3일~5일, 12월9일~11일, 12월16일~18일
연말 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성경완독	10월21일(금)~29일(토) / 문의: 010-3340-0201
종교문화여행	11월18일(금)~20일(일)
치유 순례 피정	회비: 1만원 / 선착순 30명
(풍수원 옛종교길 순례)	문의: 010-9715-1203

어능성지 월례 음악 피정

내용: 유배와 함께하는 찬양 피정 / 미사: 박상호 신부
때: 매월 네번째(토) / 문의(접수): 031)636-4061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 / 문의: 010-7197-1390

때: 10월26일(수) 19시30분 / 대상: 만 35세 이하 청년
곳: 착한목자수녀회(주최, 전철 2·7호선 건대입구역)

교육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미나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7기 개강 3주차

때: 9월26일(월) 10시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가톨릭노동장년회 품물모임 '풍물림'

생활 스트레스, 품물로 날리자
때, 곳: 매주(수)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5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
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오르프'와 함께하는 힘,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10명 이내) / 카톡ID: k_orff
때, 곳: 10월11일~11월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와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3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1차 전형 원서접수: 10월17일(월)~27일(목)·전형일
11월12일(토)·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14일(월)~24
일(목)·전형일 12월10일(토) / 문의: 02)705-8668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 영성·철학상담: 철학
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국악가·대금·소금·단소·생황·음악악기·팬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타악	(수)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문의: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문의: 010-7244-1312

이론 수강생 모집(입문반)

대상: 이론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분
때, 곳: 10월17일~12월19일 매주(월) 14시~17시(10회), 성바오로수도회 본원 바오로 센터(주최) /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시각장애전문교육기관 충주성모학교

유·초·중·고·전공과 운영, 시각장애 및 저시력 인(약시), 무상교육, 기숙시설, 통학, 보조기기 등, 35종 장학금, 안마사자격, 일자리 등
문의: 043)852-1374 교무실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점정고시, 수능, 보컬, 사진, 기타, 필라테스, 영어대화, 독서토론 등 학업과 문화수업, 자격증 수업이 있습니다
문의: 02)382-5652 서울현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문화공간JU역촌동

2023년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 신입생(고등) 모집

원서접수: 10월17일(월)~21일(금) / 인원: 11명(성
직자추천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각 1명 포함)
대상: 저소득층·소외계층 여학생 중 음악을 전공
하고자 하며 기숙사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학생
세부 전형 안내 및 원서 게시: 홈페이지(novitas.kr)
문의: 031)584-1130 교무실, 070-4129-7072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 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2)439-3811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
고자 하는 분들 / 내용: 일반독서·인문독서·영
성독서(각 과정 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10월17일부터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 회비: 각 단계별 10만원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목요신학강좌 트랙 II(한국CLC)

때: 10월20일~11월24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회비: 8만원(대면·녹화강의) / 문의(접수): 02)333-9898

10월20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희완 신부
10월27일	역사적 예수는 누구인가	김진호 목사
11월3일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예수	이규성 신부
11월10일	코란 속에 나타난 예수	송해경 박사
11월17일	하느나라 제자가 되기 위한 식별의 여정	정진만 신부
11월24일	예수의 팬(fan)에서 예수의 벗으로	현재우 박사

제21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3주)	미국 LA 영어캠프(3인 1실 기숙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등 명문대 재학생 간담회
몰타 (3주)	국내 유일 몰타 영어캠프(2인 1실 대학기숙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유럽 3개국 투어, 파리 디즈니랜드, 로마 바티칸, 마드리드
사이판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2~3인 1실 리조트) 명문대 선생님 수학수업, 다양한 액티비티와 현지 투어

모집

서울 9강동지구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대상: 9지구 성당에 교적을 둔 성인 남녀(단, 전 공자는 구역예외) / 문의: 010-6397-0865 조민호

제9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13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대~40대 후반 여성 교우(본당 제한 없음)
오디션: 10월16일(일) 13시 / 문의(문자): 010-8788-4781

카리타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 가톨릭사회사목국 소속
대상: 55세 미만 남녀 교우 / 문의: 010-3727-2214
연습: 매주(월) 19시, 유락사회복지관(신당동) 9층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발성 아카데미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	양재 S플러스 연습실 문의: 010-2252-2974

미사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매, 곳: 10월10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3호

글라렝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매, 곳: 10월17일(월) 11시, 글라렝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들꽃마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모임 취소 안내

매: 10월11일(화) / 문의: 054)955-4133, 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홍제동성당 주일 밤미사 시작 안내

미사: (일) 21시 / 고해성사: 8시30분부터
곳: 전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 국민은행 건물
보고 우회전 / 문의: 02)396-7771

파티마성모님 발현미사(팔로티화-천주교사도직회)

내용: 묵주기도, 성사, 성시간, 미사
매, 곳: 10월13일 12시~16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물구비길 160 / 문의: 010-6212-4450 장 바오로 신부

인사

2022년 서울대교구 전례꽃이 연구회 제14회 묵상 전시회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주례: 전호엽 신부
개막미사: 10월20일(목) 오전 10시30분
파견미사: 10월21일(금) 오후 4시
문의: 010-9590-4560 이월주 회장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컷팅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교육 및 피정

청소년·청년·예비자·성인 위탁 및 자체 교육·피정 / 문의(접수): 032)465-0835
참목·대월 기도 피정: 10월12일~16일·11월11일~14일

한국희망재단 아프리카 식수기금 모금을 위한 전시회

후원금 및 작품판매 수익금은 전액 아프리카 식수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매: 10월4일~16일 / 문의: 02)365-4673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B2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매: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릿길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가족관계 회복과 성장, 소통훈련	10월18일~11월29일 매주(화) 10시~13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 심리상담	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부·가족·개인)
사목상담	성경, 관세,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제22회 한국가톨릭작곡가협회 성음악 발표회

매: 10월13일(목) 오후 8시 / 문의: 010-4665-8898
곳: 가톨릭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문의: 010-9146-7654(www.dstcoun.net)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청소년, 청년과 그 가족 / 문의: 02)744-0840
매: 매일 세번째(토) 10월15일 오후 4시
곳: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성가정입양원 안전관리원 모집

대상: 운전 능숙하신 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 근무내용: 차량 운행, 시설 안전관리 외 자세한 내용은 성가정입양원 홈페이지를 확인
해주세요 / 문의: 02)764-474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계약직) 모집

분야: 사무직 1명, 노무직 3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10월28일(금) 14시 서류까지 접수
이메일(manoo@cckk.kr)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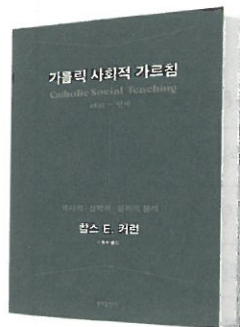
대치동성당 사무장(계약직)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 업무, PC(엑셀·한글) 사용이 능숙한 분(본당 사무 경력자 우대)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11일(화)까지 이메일(hanjsw1@hanmail.net) 및 사무실 방문·우편(우 0361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57길 11, 대치동성당 사무실) 접수 / 문의: 02)562-0195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재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천주교서울교구천주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11월6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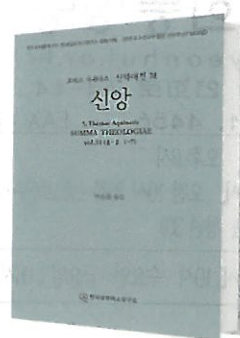


신간

가톨릭 사회적 가르침

찰스 E. 커런 지음
분도출판사 | 392쪽 | 2만9천원
문의: 02)2266-3605

현대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신학과 윤리학 그리고 교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한 최초의 해설서다. 저자는 현재까지의 교황 및 교도권 문헌 열두 편을 크게 방법론과 내용으로 나누어 연구하면서, 특히 역사적 발전과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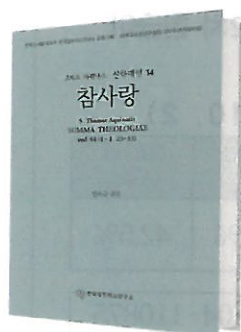


신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31
신앙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526쪽 | 4만원
문의: 02)762-1194

성 토마스가 보기에, 은총으로 선사된 '신학적 덕'이라는 이름의 덕들은 사추덕보다도 우월한데, 신학적 덕은 인간의 능력을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기에 적절하게 해주는 덕으로 하느님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신학대전 제31권은 이러한 신앙이라는 신학적 덕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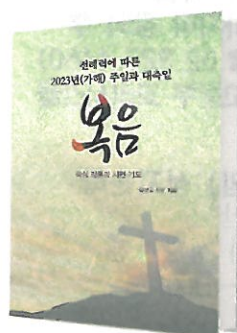


신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34
참사랑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660쪽 | 4만원
문의: 02)762-1194

토마스가 강조하는 것은 참사랑이 인간의 본성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의 선물이며, 그것이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켜 하느님의 참행복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본향에 이르러 하느님을 온전히 뵈고 알게 될 때 사랑은 더 이상 수고가 아니라 생명이며 기쁨이 될 것이다.



신간

전례력에 따른
2023년(가해) 주일과
대축일 복음

김성길 지음
기쁜소식 | 460쪽 | 1만8천원
문의: 02)762-1194

2021년(나해), 2022년(다해)에 이어 2023년(가해) 주일과 대축일 묵상 강론과 시편기도가 출판되었다. 저자는 교우들의 영적인 목마름에 응하고자 하는 사목자로서 소박한바람으로 주일강론집을 펴냈다고 밝히고 있다. 복음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음을 강조하며 강론에 앞서 먼저 복음을 찾아 읽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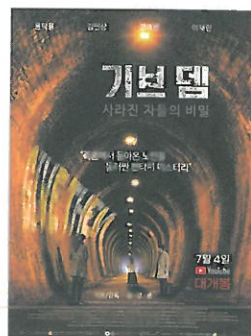


신간

성서 지혜문학 입문

박요한 영식 지음
성서와함께 | 376쪽 | 2만5천원
문의: 02)822-0125

지혜는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주제다. 성경의 지혜 책들 역시 한 인간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교훈들을 전함으로써, 인간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 참된 지혜를 찾고, 만나고, 누리는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영화

기브 뎀:
사라진 자들의 비밀

유튜브에서 '기브뎀'을 검색하면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401-2379 피엠피처스

'죽었던 노인이 깨어났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다니는 노인이 매일 급격히 젊어진다.' 시간을 역행하는 판타지 미스터리 단편 <기브 뎀: 사라진 자들의 비밀>이 유튜브에서 개봉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평협 등 생명운동단체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영화다.

제2249(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8733-651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건진성사 안내

건진성사 : 12월 3일(토) 오후 3시

교리일정 : 11월 1일(화) ~ 11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대상자 : 세례받은 만 12세 이상 및 교리강의에

참석을 원하는 모든 신자

신청기한 : 10월 23일(주일)까지

강사 : 성바오로딸 교리교육팀 수녀님

※ 참고도서 :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예절연습 : 11월 29일(화) 마지막 강의 후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02.323.4450)

※ 청소년 건진교리는 11월 중고등부 교리시간을
통해 진행합니다.

◎ 연성회(남성70대이상 모임) 성지순례

장소 :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출발 : 10월 13일(목) 오전 8시 성당마당

문의 : 김무영 요셉 (010-3891-4300)

◎ 남성을프레야

일시 : 10월 16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성소후원회 미사 : 10월 18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병자영성체 : 10월 21일(금) 10시 미사 후

◎ 초등부주일학교 성지순례

일시 : 10월 22일(토) / 구산성지

문의 : 안토니오 교감 (010-5377-8909)

※ 10월 22일(토) 오후 3시 어린이미사는
없습니다.

◎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성모마리아의 정신인 기도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정영희 안나 (010-5006-1158)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김순교 안젤라 (010-2223-1345)

◎ 한푸름 청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301호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20예그리나전례단·30프리모전례단 모집

주님의 잔치에 함께 할 청년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청년20예그리나전례단장 (010-6339-6324)

청년30프리모전례단장 (010-2550-2375)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0. 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6	858 (40.9%)	817 (39.0%)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이지만 일십만원
누 계 69,713,300원

◎ 감사헌금 (9월 26일~10월 2일)

박수현 사십만원 익 명 오십만원
익 명 사십만원 김영숙가필라 일십만원
이지만 일십만원 익 명 일백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27주일)

교무금 16,480,000원

주일헌금 4,733,000원

군인주일 2차 헌금 2,147,100원

입당	31	봉헌	332, 221	성체	182, 156	파견	438
----	----	----	----------	----	----------	----	-----



주 님 은 당 신 구 원 을 민 족 들 의 눈 앞 에 드러 내 셧 네